

불자 세상보기



석길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최근 1주일 정도 일본 도쿄에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체류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그때마다 언뜻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승객이 많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전철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얘기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전철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직원숫자보다는 훨씬 많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새롭게 이용하게 되는 전철역 개찰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기 되었다. 처음의 의문은 이랬다. 우리나라보다 일본 전철과 역 운영상의 자동화가 덜 진전된 것일까? 답은 '아니다'였다. 자동화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훨씬 더 많아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좀더 많은 곳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사실 하나, 일본은 생각보다 잉여(?)인력을 여러 곳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시작되고 '희망버스'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다 출국했던 터였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진중공업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계약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던 때라, 잉여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새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0여 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자동화는 그 잉여(?)를 말 그대로 잉여로 몰아붙이게 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고?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입장을 너무나 손쉽게 내세우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래서 그런 일본사회가 의문이고 낯설게만 보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순간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교차했다. 무의식중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외면

하고 있던 자신에게 부끄러웠고,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가 부러웠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은, '아, 저게 고통의 분담이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 부분만은 매우 부럽고 닮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그 약자에게 책임이 떠넘겨진다. 사실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약자가 되는 데는 그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지 만, 유독 우리 사회만은 그것을 외면하고 약자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듯 비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외면한다. 핑계는 하나다. 살기 바빠서. 자신이 그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왜? 살기 바빠서. 희망버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은 아직 사회적으로 강자에 속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나고?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회에서

의 강자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회 구조적인 약자가 양산되는 사회는 그 사회 자체의 붕괴를 당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접할 우리 불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실천 덕목은 보시바라밀이다. 필자는 가끔 보시를 이렇게 설명한다. 보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눌 것이며, 나누지 않는 자가 어찌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가? 주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지 않는 방편이 된다. 무관심이 사회 구조적인 갈등을 조장한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자가 어찌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주변으로 돌려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압력으로 승화시켜 사회적 약자의 양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관심과 나눔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社說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

"대단히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도법 스님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108배를 올렸다. 이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몸부림이었다.

고용노동부 방문에 앞선 2일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회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한진중공업 사태도 국민들이 마음 내고 지혜 모아 길을 찾으면 될 일"이라며 "영혼으로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대화, 일단 만나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것이라는 호소였다.

스님이 호소문에 담은 구조절절한 내용은 차치하고, 이날 화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불교계가 왜 노동문제까지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법 스님은 지난해 기자회견회에서 "화쟁은 절충·타협을 넘어 불교라는 진리의 정신을 갖고 현실문제를

해결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을 보고 실상대로 하지는 게 화쟁이라는 뜻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실상은 노동문제 자체가 아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분별도 이번 사건의 본질이 되지 못한다. 35m 크레인 위에 우리 이웃이 목숨 걸고 올라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첫째요, 그곳의 세상과 아래 세상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노사가 고집불통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무관심과 불통이 실상이다.

무관심도 결국 동체대비 하지 못한 소통의 부재이다. 누구나 크레인 위에 오르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세상과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을 태울 수 있다. 타 들어가는 속을 해소해 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정병에 담긴 감로수가 아니라 이웃과의 대화이다.

봉은사 수행환경 반드시 지켜져야

천년고찰 봉은사 앞에 49층 규모의 고층빌딩이 들어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강남구청은 최근 봉은사 맞은편의 4층짜리 코엑스 컨벤션센터를 39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코엑스 컨벤션센터가 증축되면 봉은사는 일주문 앞이 고층빌딩에 가로막히게 된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답답한 일은 코엑스 증축 계획을 두고도 천년고찰 봉은사는 아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심사찰 봉은사가 인근 지역의 건축으로 흥역을 잃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 45층 규모의 삼성동 아

이파크가 건설 될 당시에도 봉은사는 수행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건

물의 우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대중전 등 전각의 단청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결국 건물은 들어섰다.

주지 진화 스님은 8월 1일 기자회견담회에서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42개월 동안 매일 한 차례씩 (천수경) 108쪽 정진법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거창한 구호보다 사찰 본연의 수행기능에 초점을 맞춘 범위로 사부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봉은사의 고층은 천년고찰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다보니 결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얼핏 보기에 약제 같은 일들이 기도를 하면 호재로 변한다.

봉은사 사부대중이 이를 증명해줄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

폭우가 내린다. 지축을 울릴 듯 쏟아지는 장대 빗소리. 아스라이 들려오던 천둥소리마저 한입에 삼켜 버렸다. 올 여름 쏟아지는 장맛비는 정말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기억조차 아련한 30여 년 전 어느 해 여름날, 응송 스님(1896-1990)을 찾아 가던 그 해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서울에서 그곳까지는 장정 예닐곱 시간이 족히 걸리는 먼 곳, 땅 끝 마을이었다. 가는 길 어디서부터인지 비가 그치고, 힘겹게 달리던 시외버스 썰무니로 구름처럼 흩먼지가 일었다. 응송 스님이 계산해낸 백화사의 밑고 먼 땅 끝 마을 구렁리에 있었다. 해질 무렵 도착한 백화사는 노스님만머이나 오래된 듯 퇴락할 대로 퇴락된 작은 암자였다. 집의 모퉁이를 받친 버티목 사이로 무심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암자이면서 사저 같은 곳, 이곳이 바로 노스님의 수행처였다. 당시 스님의 세수는

88세. 수수한 시골 노인 같은 분이였다. 이미 기력이 닿았는지 금세 필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신 노스님의 눈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필자와 노스님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곳을 오기 전 노스님의 얘기를 처음 들은 건 해 전의 일이다. 어떤 노스님이 한문을 할 줄 아는 젊은이를 찾았다고 하는데 필자가 적임자 같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필자의 관심 밖의 일이라서 곧바로 잊어 버렸다. 그러나 참으로 숙연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인 지도 모른다.

얼마 후 필자는 백화사로 노스님을 찾았다. 도착한 다음 날엔 늦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무더운 날씨 탓도 있었지만 낯선 시공간의 이질감은 분별력을 잃게 하기에 족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암자의 어린 아이가 "공양 드세요"하는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들렸다. 공양 때가 되었나 보다. 허둥지둥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노스님께서는 이미 점심공양을 다 드셨는지 작은 찻마루에 앉아 계셨다. 이미 필자의 처지를 이해라도 하는 듯, 잠잠히 웃고 계셨다.

그 해 여름에 시작된 인연

백화사의 첫날은 이렇게 머쓱하게 시작된 셈이다. 어렵듯이 백화사의 공간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근 한 달이 지난 후의 일이다. 새벽에 일어나 샘물을 떠오는 일이나 그의 원고를 문운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노스님의 손때 묻은 크고 작은 분재들, 글 읽는 선비의 집에 꼭 심는다는 만리향을 본 것도 이때 즈음이라 기억된다. 점점 주변의 사물들이 친근해지던 어느 날, 노스님께서 전지가위를 들고 한 뼘 크기로 차나무 가지를 자른 후 황토를 묻힌 가지를 모래판에 가지런히 꼽고 계산 것이 아닌가. 뜻도 모르고 노스님을 따라 한 첫 공부가 '차나무 목욕 기르기'였다.

그가 초의 스님의 다공을 이어 차를 만들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차를 마시는 노스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생경했다. 차를 알지 못했던 필자로서는 그 깊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를 마신 후 입 안 가득 느껴지는 시원한 청량감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아득 해 오월, 노스님을 모시고 차 있음을 따라 간 강전에서 난생 처음으로 참새 혀 같은 새순을 보았다. 당시 차 밭이

없었던 노스님께서는 강진, 담양, 진도 등지에서 차 잎을 채취했다. 현지에서 인부를 사서 차 잎을 따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늦은 저녁 차 잎을 튀어 밤새도록 차를 만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막 튀어낸 햇차의 향기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목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것은 차가 아니라 향 덩어리였다. 숨을 쉴 적마다 피어나는 맑고 그윽한 향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였다.

지금도 필자는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후일 응송 스님과 필자를 이어준 노스님의 원고는 1985년 <동다정통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 되었다. 노스님이 떠나신 후에도 봄이 오면 필자는 차를 만든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차를 마신다.

무렵엔 그 해 여름에 시작된 필자와 차의 인연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한없는 가피이자 평생 값아아할 빛인지도 모른다. 이 인연으로 차를 만들어 손길이 닿는 대로 차를 보시하고, 연구하는 학인이 되었다. 늘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 응송 스님의 따뜻한 눈빛은 언제나 필자를 재촉하는 버팀목이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일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한하여 공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나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정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사단 대 한 불 교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곡역) 휴대폰 010-9217-2237

진기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http://www.esaju84.co.kr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교육기간: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의 제자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90일 완성)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1000원 보장
전화강정 대한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